



광운대학교

# 박영식 총장

최근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정보통신 열풍으로 인해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인재 양성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인식하는 경영자가 늘어나면서 대학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전자와 통신 부문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광운대학교의 박영식 총장을 만나 평소의 교육철학과 올해의 학사운영 계획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Q** 요즘 2000년도 학사일정 관계로 무척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신입생도 선발하셔야 하고 새 교수도 초빙하셔야 할 텐데 이렇게 인터뷰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올해는 새 천년을 여는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한해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올해를 새 천년의 변명으로 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로 줄로 압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교육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여야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나라를 일류 국가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총장님께서 올 한해 학사운영을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요즘 들어 국가의 경쟁력이 대학교육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21세기에는 더욱 깊이 인식될 것입니다. 대학에서 경쟁력이 나오려면 대학별로 특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분산하지 않고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특성화될 수 있고, 그 특성화에서 경쟁력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광운대학교는 그 출발에서부터 전자와 통신을 특성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광운대학교의 특성화가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Q** 최근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 4명 중 1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연히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교환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통이 크게 증가하

면서 불건전 정보 유통 등 인터넷의 역기능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도 학사업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각종 불건전 정보의 차단 등 정보통신윤리 정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컴퓨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이버 문화 창출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건전 정보의 유통도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집계한 불건전 정보 유통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한해 동안 약 3만여 건의 불건전 정보가 유통됐습니다. 이 중에서 음란 폭력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불건전 정보의 유통 또한 증가하지만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유형의 불건전 정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원조 교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불건전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불건전정보신고센터 운영 및 모니터링, 인터넷 불건전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결정 및 관리, 정보통신 윤리 교육 및 홍보, 정보통신 윤리 관련 조사 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소년 권장 사이트 제도 운영, 네티켓 실천 캠페인 및 사이버 성폭력 추방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Q**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 붐이 일면서 인문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주역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기술과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인문과학적인 연구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정보통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이 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보통신에서 경쟁력이 나오고 부도 창출되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은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쓰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바른 생각, 건전한 의식, 인간중심의 사상을 가져야만 기술이 바르게, 인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넓히고, 인간과 역사를 생각하게 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만드는 학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과학·기술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더욱 절실합니다.



### 대담자 박정순 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문리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전공은 영미 사회철학 및 윤리학.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미국 Emory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저서는 Contractarian Liberal Ethics and the Theory of Rational Choice (New York, 1992) 등이 있다.



그러나 종래와 같이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수는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를 줄이되 인문학 전공자를 위한 국가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문학 없는 과학·기술은 위험할 뿐입니다.

**Q** 요즘 날씨도 춥고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총장님과 같이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건강관리에 관심을 두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항상 젊음을 유지하시는 총장님의 건강관리 비결을 공개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건강관리를 위한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운동도 별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절도있는 생활을 하며, 마음을 크게 갖고, 편안하게 갖습니다.

**Q** 총장님께서서는 「플라톤 철학의 이해」 등 다수의 책을 저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젊은 세대에 교훈이 될 만한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처럼 세상 변화 속도가 어느 때보다도 빠른 때에는 평소 독서를 통해 지혜를 얻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야 합니다. 책은 고전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전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읽고 평가한 책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합니다. 나는 고전 중에서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권하고 싶습니다.

**Q** 광운대학교는 사이버캠퍼스, 디지털도서관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화대학으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정보통신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광운대학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21세기 일류대학으로의 성장을 위해 광운대학교는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자명문대학을 만들자는 것이 광운대학교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광운대학교의 역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보사회에도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2007년까지 광운대학교를 세계 100대 전자명문대학으로 만들어 보자는 목표 아래 그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